

박재삼 초기시에 나타난 장소성 고찰

김 원 경 (경희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표상공간과 장소 정체성 |
| 2. 원형적 상상력과 장소성 | 5. 결론 |
| 3. 물 이미지와 장소애 | |

국문초록

시의 공간 의식에 대한 고찰은 시인의 내적 정념과 사유구조, 대상을 열린 존재로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상학 토대의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생활세계는 ‘장소’라는 공간 범주에서 탐색된다. 즉 인간이 기억하는 장소나 경관, 지리적 명칭 등 형식적 개념을 넘어 인간 실존과 열린 존재의 인지적 사고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인이 시적 피상물을 대상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논의는 박재삼 초기시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시적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태들과 장소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재삼에게 ‘장소성’이란 정신적 원형에 가닿아 있는 근원적 기억의 장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박재삼 시에서는 각인된 추상공간이 체험공간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장소성이 탄생한다. 이는 ‘산’, ‘별’, ‘바다’, ‘섬’과 같은 자연물을 사유하는 동안 시간적 거리를 압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과거의 기억과 죽음에 관한 체험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병치됨으로써 시적 정서의 이행과 통로, 공간에서의 기억의 틈 등이 유발된다. 때문에 박재삼이 인지하는 장소는 응축된 장소이며 화자로 하여금 장소애와 장소 내상을 동시에 확보시키는 일상

의 범상한 틈이라 할 수 있다.

박재삼 시에서 다수 엿보이는 물 이미지에 대한 변주 또한 현상학적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물의 공간이 고정, 정지되어 있는 것인지 흐름과 근원적 상상력을 담보하는 것인지에 따라 각각의 다른 관념화가 구상되고 있다. 즉 물의 이동과 운동성을 통해 물 시적 화자는 ‘장소감의 문턱’을 만들고 그 문턱에서 정념의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는 ‘중간의 호흡’을 발현시킨다. 판단을 유보하고 확정짓지 않음으로써 유보된 정념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서정시의 재래적 정체성을 재현시킨다.

공간의 개폐되는 양상을 통해 시적 화자가 품게 되는 슬픔의 깊이 또한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타자(친구)의 이별과 준향(공동체)의 이별을 통해 박재삼이 가공하는 슬픔의 편린들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박재삼 초기시가 가진 슬픔의 육화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전자가 ‘타자’라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공간 구성이라면 후자는 수직적 관계의 공간 구성이다. 때문에 개방과 폐쇄의 장소 양식들이 시편들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재삼 초기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전략과 장소성 고찰을 통해 그간 박재삼 시의 현상학적 연구에 보다 깊은 이해를 더할 것이다.

핵심어 : 박재삼, 장소성, 장소정체성, 장소감의 문턱, 통로의 공간, 공간의 개폐

1. 서론

박재삼은 유치환의 추천으로 『현대문학』 6월호에 시조 「섭리」를 실었고 동시에 같은 해 11월호에 시 「정적」을 서정주의 추천 받아 등단했다. 이보다 앞서 1953년 모윤숙의 추천으로 『문예』지에 시조 「강물에서」가 발표되었으나

박재삼의 등단 시기는 추천이 완료된 1955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등단 시기 추천사를 살펴보면 “고은 感性이 언어의 巧緻를 입어 완벽에 이른감”¹⁾이 있다는 상찬과 함께 과도한 언어 집착에 대한 경계의 당부, 한문투 사용의 문제와 “체험의 奧達함의 신개척의 것”²⁾이라는 언어 감수성에 관한 평으로 압축된다. 이는 박재삼 시의 태동기와 초기, 중기, 후기의 시까지 아우르며 전통 지향의 언어적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재삼 시의 태동은 시조를 통해 구축되었고, 그로인해 그의 시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주의적인 측면은 시 세계의 시적 좌표를 가능하게 하는 데 큰 구심축이 된다. 박재삼은 첫 시집 『춘향이 마음』에서부터 작고 1년 전 1996년에 간행된 『다시 그리움으로』에 이르기까지 14권의 시집과 시선집, 1권의 시조집을 상재하면서 활발한 시작 활동을 보여주었다. 1960~70년대 대표적인 순수서정, 전통서정 시인으로 손꼽혀 왔던 박재삼 시에 대한 연구는 그간 그의 초기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다작이기도 하거니와 초기시 이후에는 일상적 소재시나 단품시, 반복적 자연물의 구상화라는 측면에서 주제와 소재의 반복적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박재삼의 초기시는 1시집 『春香이 마음』(신구문화사, 1962년), 2시집 『햇빛 속에서』(문원사, 1970), 3시집 『千年의 바람』(민음사, 1975)까지로 한정한다. 이는 14권이라는 시집이 묶여지는 시기와 시적 경향을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초기시에서 박재삼은 한, 자연, 그리움, 모성, 가난, 슬픔, 허무, 죽음의식 등에 관한 시적 탐구를 보여주며 한국적 정한을 토대로 한 독특한 어법을 구사한다.

박재삼 시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압축할 수 있다.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 본 연구, 전후 전통서정시의 형성 범주 안에서의 한, 슬픔, 가족, 허무, 죽음의식 등에 대해 고찰한 서정성 연구³⁾, 박재삼 시의 특

1) 유치환, 「詩薦後感(1)」, 『현대문학』, 1955년, 6월.

2) 서정주, 「詩推薦辭」, 『현대문학』, 1955년, 11월.

3) 김강재, 『박재삼 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2000; 김양희, 「박재삼 초기시의 상상력과 시세계」, 『인문학연구』 제34호, 2007; 김종호, 「설화의 주술성과 현대시의 수용양상 - 서정주와 박재삼의 시」, 『한민족어문학』 제46호, 2005; 맹문재, 「박

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언술 구조나 구문의 형상화에 대한 형식적 연구⁴⁾가 그것이다. 이밖에도 물, 바다와 같은 자연물의 이미지나 모계, 콤플렉스 등의 상상력과 같이 현상학적 측면의 연구⁵⁾를 들 수 있다. 40여 년의 시간동안 한국 시사의 서정적 중추의 자리를 지켜왔던 시인인 만큼 박재삼에 대한 연구는 그의 개별 시의 특징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 ‘전통서정’과 같은 용어로 수렴되는 한국 근대시의 재래적 특수성에 맞춰 연구되었다.

평론 논고를 제외하고, 연구 논문 중에 그의 실존적 사유 구조를 공간 분

재삼 시에 나타난 가난 인식 고찰, 『비평문학』 제48호 2013; 맹문재, 「박재삼 시에 나타난 가족 의식」, 『박재삼 시의 사회의식』 제15회 박재삼문학계 문학세미나 자료집 2012; 문홍술, 「한의 질적 변용과 절대 세계로서의 자연」 『인문논총』 제17호 2008; 심재휘, 「박재삼의 시집 『춘향이 마음』에 나타난 상상력의 구조」, 『상허학보』 제28호 2010; 이경수, 「서정주와 박재삼의 춘향 모티프 시 비교연구- 시선과 거리를 중심으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1996; 이광호, 「한과 친화력- 박재삼 시의 자리」, 『현대시학』, 1997.7; 이성희, 「박재삼 시에 나타난 연금술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이승원, 「박재삼 시의 자연과 생의 의지」, 『문학과 환경』 16권 2호, 2007; 조춘희, 「박재삼 시의 전통 구성방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 59호, 2011; 조춘희, 『전후 서정시의 전통 담론연구 -조지훈, 서정주, 박재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한명희, 「박재삼 시 연구 - 성찰적 허무주의의 미학」, 『한국시학연구』 제15호, 2006; 황인원, 『1950년대 시의 자연성 연구 - 구자운, 김관식, 이동주, 박재삼 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

- 4) 고희진 「박재삼 시 연구 - 초기시의 시적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호, 2006; 윤석진 「박재삼 시의 문체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5; 여태천 「박재삼 시와 서정의 문법」, 『한국어문학연구』 제52호, 2009;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7; 이광호 「한과 지혜」, 『울음이 타는 가을강』, 미래사, 1991.
- 5) 강경애, 「박재삼 시 연구 - 초기시에 나타난 물 이미지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9; 김명희, 「박재삼 시론 - 바다와 저승 이미지」, 『새국어교육』 제35호, 1982; 박명자(리연), 「빛과 어둠의 콘트라스트, 恨 -박재삼 초기시에 나타난 눈물 이미지 연구」, 『한국 문학이론과비평』 제3호, 1998; 이연아, 「박재삼 초기시에 나타난 ‘물’ 이미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이상숙, 「박재삼 시의 이미지 연구 - 초기시에 나타난 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6; 신현락 「물 이미지를 통해본 박재삼의 시 세계」, 『비평문학』 제12호, 1998; 장만호, 「박재삼 시의 공간 상상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0; 한민훈 「박재삼 시의 모성적 세계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2007.

식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사례로는 김강제⁶⁾, 장만호⁷⁾, 박미정⁸⁾의 논의가 있다. 이 논자들의 선행 연구는 박재삼 시의 의식 속에 드러난 본질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한다는 면에서는 유의미하나 한 시인의 세계관, 개별 작품의 깊이를 객관적인 해명을 통해 명징하게 구체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박재삼 시의 공간이미지가 지나치게 ‘한’과 ‘눈물’과 같은 ‘박재삼식 서정’에 고립된다든지, 자연에서 느껴지는 서정성이 강조되어 재래적 감성에 한정되어 버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간에 대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시적 정서가 발생하는 장소와 공간, 혹은 박재삼

6) 김강제는 박재삼 시의 공간 의식을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그의 의식에 공간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반영됐는지 고찰한다. 존재의 고독함에 근거하여 원형공간의 구축을 드러내고, 회귀적 공간이미지 제시를 통해 원형적 세계를 갈망하는 그의 시적 특이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 두 공간 이미지에 대해서는 공통적 특성으로 자연 공간이 함께 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적 특이성과 구체성이 박재삼 시가 서정시로서의 가치나 문학사적 위치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 김강제, 「박재삼 시의 공간의식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9호, 1999, 69-91쪽 참조.

7) 장만호는 박재삼 초기 시에서의 공간 유형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각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시 의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는 이러한 시각이 관습적이라고 평가되는 박재삼의 시적 공간을 시인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된 창조적 공간이라고 확인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장만호는 공간 상상력을 통해 시인의 내적 인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박재삼의 초기 시집 『춘향이 마음』에 수록된 시들에 형상화된 공간을 분류하고 각각의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해명한다. 대표하는 공간으로는 ‘섬/감옥’과 ‘꽃’을 명명 하였는데 이는 환과 기다림 그리움의 공간에서 생명력이 있는 화합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해명하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쓰인다. 장만호, 「박재삼 초기시의 공간 유형과 의미 - 박재삼 시집 『춘향이 마음』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30호, 2006, 201-224쪽 참조.

8) 박미정은 박재삼 시에 나타나는 바다의 공간성에 집중했다. 자연은 영원성과 퇴행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이며 현실은 시인에게 실존적 자각의 공간임을 고찰하며 시인이 자연의 부산물인 바다라는 공간을 무수히 변화하는 인식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실존적 자각의 공간으로 사유하였는지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규명하고자 했다. 박재삼의 바다에는 원형의 반복적 회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으로 인한 변용된 공간으로 인하여 슬픔과 비애를 극복하고, 나아가 소멸과 생성으로 현실을 자각하는 수용의 공간으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고 밝힌다. 박미정, 「박재삼 시에 나타나는 바다의 공간성 고찰」, 『동남어문논집』 제32호, 2011, 31-56쪽 참조.

의 실존적 삶의 표지를 충분히 드러내는 시 의식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추상적인 공간이 동적인 활동의 장소로 누적되면 그로인해 생긴 공간의 성격은 인간에게 일정한 ‘장소성’ 즉 ‘장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심화하여 박재삼 초기시 안에서 시 의식이 투사된 장소성을 구체화시키고 세계와 교감하는 시인의 주관성과 실존적 삶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공간 속에서 획득하게 된 ‘장소 정체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현상학적 공간론자들이 공통적으로 경유하고 있는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의미를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자 그 자체로 사유하지 않는다. 현존재는 실제적인 사물이나 도구와 달리 공간의 한 부분을 채우는 존재자가 아니며, 공간 속에서 객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공간 점유’란 물체적인 육체가 채우고 있는 공간의 일부에 현존재가 들어 차 있는 의미가 아니라, 실존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활동공간을 허용하고 있는 양태이다. 즉 현존재가 자기의 소재를 정할 때 현존재는 공간으로부터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존재는 ‘거리 없앰’과 ‘자기 허용’의 방식으로 사적이며, 개인적인 심리 공간을 구축한다.⁹⁾

공간은 사적 장소이든 공적 장소이든 존재의 의식과 관련하며 나아가 심층 의식과도 매개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 받으며 실존에 관여한다. 정체성이 신체뿐만 아니라 사유가 공간과 만나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공간은 물적 토대를 이루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공간 활동을 통해 정신과 경험적 관계를 이루는 생명체라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앙리 르페르브는 ‘공간의 생산’이라는 용어를 성찰하며 헤겔주의적 의미를 공간에 적용한다. 인간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세계를 생산하듯이 공간 역시 생산과 재생산의 유기적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이 사회화되었다기보다 사회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¹⁰⁾

9)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동서문화사, 2008, 472-473쪽.

10) 앙리 르페르브, 『공간의 생산』, 애코리브르, 2011, 289쪽.

공간은 인간의 의도, 태도, 목적과 경험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장소와는 구별된다.¹¹⁾ 공간이 추상적 의미를 띠고 있다면 장소는 생활의 중심을 이루며 흔적과 경험을 환기하고 애착과 같은 심리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신적이며 정체성과 연계한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고 중요성을 인식할 때 공간은 장소로 변모한다. 따라서 공간이 의식 속에서 구성되는 대상이라면 장소는 보다 깊은 심층 속에서 이해하고 지각하는 대상이 된다. 즉 공간이 가치로 변화할 때 장소로 변화한다. 이 때문에 장소는 선택이며 심리적인 진정성과 매개하여 ‘장소성’으로 전이된다.

박재삼 초기시에서 구축되고 있는 공간 또한 ‘장소성’으로 남아 있는 부산물들이다. 박재삼에게 있어 배경은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거리가 아니라 화자의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체로서의 장소가 된다. 이 공간은 시적 화자가 점유하려고 하는 정념의 축과 점유될 수 없는 기억이나 외부적 자연물에 가닿아 미끄러지는 허무감을 통해 가시화되는 객관적 상관물의 축으로 양분화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 인간 간의 ‘거리 없앰’과 공간에서 휘발되어버린 기억과 망각의 화학 작용의 ‘거리 줄이기’와 같은 장소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본주의적인 근원 공간을 호출하고 점유하게 된다. 즉 현존재가 공간 안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장소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특히 장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화자의 의식을 구성하고 이 구성을 통해 사유의 분리와 환원이 변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재삼 초기시에서 장소란 실제의 ‘장소’라기보다는 ‘정신적 원형’에 가닿는 ‘근원적 장면’에 가까운 실존적 삶의 의미를 표출하는 ‘장소성’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박재삼 초기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소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104쪽.

2. 원형적 상상력과 장소성

박재삼 시의 주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선행하는 신화적 사고에서 태동한 ‘빈 공간 이념’에서 시작하여 변화의 장소인 어머니의 자궁으로 상징되는 공간을 거쳐 미세한 사물들로 응축된다. 공간 이미지들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헤게모니를 구가해온 추상적 공간, 객관적 공간, 빈 공간 개념으로부터 채워진 충만한 공간, 구체적 공간, 실천적 공간으로의 변화로 나아간다.¹²⁾ 이에 따라 시에 설정된 공간의 변화는 시인의 복잡한 사유 체계를 반영하고 드러낸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거기존재’로 독해하면서 ‘거기’를 존재와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곳으로 존재가 공간을 통해 현시되고, 공간이 존재를 통해 현시된다고 말한다.¹³⁾ 공간이 현시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가 그 공간 안에 내던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푸 투안이 말한 ‘공감체험’과도 일맥상통한다. 개인의 다양한 체험들이 개인의 주체에 상호 침투함으로써 이 바탕 위에 다시 공간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공간체험’은 주체의 감성과 정서의 차원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며 나아가 공간 그 자체의 대상에서도 의미가 발생한다. 이로써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의미체로서의 장소¹⁴⁾가 되는 것이다. 즉, ‘공간체험’은 주체의 실제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기억은 주체와 공간을 묶어주는 연결성을 가지게 된다.¹⁵⁾ 그러므로 시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는 시인이 세계에 대한 실존의식을 구축해 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이 표출하고 있는 공간 이미지는 시적 주체의 실존 의식이 시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박재삼의

12) 앙리 르페브르, 위의 책, 339-349쪽.

13) 마르틴 하이데거, 앞의 책, 70-73쪽.

14)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19쪽.

15) 이-푸 투안, 앞의 책, 93-108쪽.

경우 공간이라는 기존 체계에 자신의 상상력을 붙여 넣음으로써 정서와 이미지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정서와 이미지의 변이 관정을 통해 기존의 공간은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 ‘장소성’으로 재탄생한다.

산에 가면
우거진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

혼령도 눈도 코도 없는 것의
흠냄새까지 서린
아,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목숨의 골짜기 냄새,

한 동안을 거기서
내 몸을 쉬다가 오면
쉬던 그때는 없던 내 정신이
비로소 풀빛을 띠면서
내 몸 전체에서
정신의 그릇을 넘는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

- 「산에 가면」 전문

시의 화자는 전원 심상을 다루면서 산의 상승 이미지를 통해 생명지지를 회복하고자 한다. 1연의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와 2연의 “흠냄새까지 서린” 생명력을 지닌 냄새들이 3연에서 “풀빛을 띠면서/ 내 몸 전체에”서 “냄새를 내게”하면서 “그때는 없던 내 정신”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다. 풍요로운 산의 이미지가 냄새로 전이되면서 활발한 상승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연 공간은 생명적 가치로 충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연을 통

한 평화로운 세계의 인식은 불안한 현실에서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위 시가 지닌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변주를 살펴볼 때 더 명확해진다. 렐프는 장소에 대하여 그곳은 인간이 공동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는 일종의 ‘장소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에 박재삼에게 있어 ‘산’은 생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주체에게 충만감을 주는 장소가 된다.

추상공간은 경험이 없더라도 장소와 장소를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때¹⁶⁾, 냄새의 공간은 추상의 공간 즉 ‘빈 공간’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위 시의 ‘냄새’가 바슐라르가 말한 ‘구석’, 곧 스스로를 응집시켜 웅크리고 싶은 공간 또는 통로의 공간, 이행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¹⁷⁾

‘빈 공간’은 서구 사상의 공간 표상의 시작이며 희랍신화에서의 질서 잡힌 세계이다. 이러한 두 공간에 경계를 만드는 동시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빈 공간’의 이념은 이후 현상학적 사고에 전승된다.¹⁸⁾ 이렇게 본다면 위 시의 ‘냄새’라는 이행의 공간도 후각적 이미지와 공간의 결합을 통해 공간성을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즉 ‘나무’와 ‘풀’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산’의 공간에서 주체의 안식을 유도하며, 주체는 냄새라는 이행의 공간을 통로로 이동하면서 산의 포용성을 받아들여 삶의 의지를 갱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재삼은 산이라는 표상공간을 박재삼 특유의 ‘장소성’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이러한 표상 공간은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표상’됨으로써 실제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궁극적으로는 시를 읽는 이로 하여금 ‘원형적인 감각’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시화(詩化)된 ‘기억’의 장소¹⁹⁾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각’의 이미지는 유년기 흙의 냄새,

16)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69쪽.

17)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254쪽.

18) 이기홍, 「빈 공간에서 충만한 공간으로 -2차 공간의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제5호, 2011, 170쪽.

19)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105~106쪽 참조.

고향의 냄새이기에 생명이 담긴 공간으로 박재삼 시의 ‘공간적 특질’, 즉 ‘장소성’에 해당된다. 바슐라르의 ‘현상학적 시학’은 상상을 통한 의식의 지향이 특정한 대상을 향할 때, 비로소 ‘현상화’하여 상상하는 의식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²⁰⁾ 이런 의미에서 박재삼의 시적 상상력이 지향하는 대상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유년기 기억과의 교감 또는 공동체적 충만감의 정서이자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소이기에 실존적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 제5장 「조개껍질」에서는 과장된 몽상 다음에는 언제나 원초의 소박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몽상으로 되돌아와야 함을 이야기한다. 즉 조개껍질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혼자가 되어야하며 자아 회복의 삶으로써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아의 응집과 응축의 이야기이며 이 응집과 응축은 좁은 방에서 기운을 회복하는 조개껍질 속에서의 최대의 휴식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거대한 소용돌이 이후의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휴식의 가치가 모든 실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재삼은 어디든지 이행될 수 있는 광활한 추상적 공간을 형상화한 다음 자신이 꿈꾸는 세계와 합일하여 생명력을 확대시켰으나 그것을 다시 거시 공간에서 미시 공간으로 이행시킨다. 이러한 미시 공간은 박재삼만의 ‘장소성’을 창출해내며 근본적으로는 박재삼의 ‘정신적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시 3연에서 “내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가 비록 “정신의 그릇을 넘”기기는 하나 그 모든 “후덥지근한 냄새”가 일차적으로 그릇 안에 응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공간 이미지의 수축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공간 이미지의 수축 현상은 바슐라르의 『공간의 시학』에 비추어 볼 때 주체의 소극적 저항의식이 아닌 세계에 대한 대응 의식으로 바라봄이 적당하다. 이에 따라 박재삼의 시 세계가 한국적 서정과 언어적 표현에는 성공했으나 현실과 시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말한 기존의 논의는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20)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35쪽.

1

화안한 꽃밭갈네 참

눈이 부시어 저것은 꽃핀 것가 꽃진 것가 여겼더니 피는 것 지는 것을 같이한
그러한 꽃밭의 저것은 저승살이가 아닌것가 참 실로 언짢달것가 기쁘달것가
거기 정신없이 앓았는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닥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것가

(중략)

뚝단배 두엇 해동갑하여 그 참 흰나비 갈네

- 「봄바다에서」 부분

박재삼 시에서 이행되는 장소성은 어린 시절 화자가 겪은 남편 문씨 부인의 죽음을 대상으로 한 시편들²¹⁾ 속에서도 유사하게 형상화된다. 남편 문씨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연민과 공감을 통해 이해가 되는 사랑이기는 하나, 화자가 겪은 구체적인 정서는 아니다. 문씨 부인의 죽음은 산 사람(화자)이 체화된 간접적 죽음이고, 저승과 이승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도식 가운데서 저승이라는 공간은 화자에게 추상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추상 공간이 시편 속에서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섬”이라는 특수 공간을 형상화하며 자신만의 장소성을 가진다. 섬은 육지와는 동떨어진 외지이지만, 바다 안의 섬은 바다를 건디는 유일한 안식처다. 바다가 죽음과 건넌, 감각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섬은 외로움과 서글픔을 토대로 한 삶과 죽음의 경계부인 것이다. 따라서 섬은 경계의 공간으로 추상 공간인 이행의 공간을 표상하고 있으며 화자 개인에게는 미시적 불안을 가중화시킨다. 이는 재래적 한국 전통

21) 남편 문씨 부인의 죽음을 다룬 직접적인 시편으로는 「봄바다에서」, 「어지러운 혼」, 「밀물결 치마」 등이 있다.

공동체의 산물로서 이별과 고독, 죽음의 입구, 틈의 상태를 더 구체화한다. 그러나 저승을 ‘봄바다’와 동일시하면서 바다 공간 안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섬 또한 “봄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섬”이라고 표현하며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인식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세계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섬”과 “뚝단배” “흰나비”와 같은 공간을 일체화시킴으로써 통합이라는 또 하나의 삶의 이해방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린 시절 남편 문씨 부인의 죽음은 기억 속에 내재된 ‘체험적 자각’이며 이러한 구체적 감각을 통해 고유한 시적 장소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박재삼의 시에서 장소성은 동일시되는 공간을 미시적인 장소로 응축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성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시인의 정서와 상상력이 결합된 결과를 표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체는 현실 속에서 초월적 자아의 소망을 획득하게 된다.

3. 물 이미지와 장소애

박재삼 초기 시편들 중에서 물 이미지는 바다, 강물, 섬, 개울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된다. 물이라는 유동적, 근원적 특수 물상을 통해 물이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 재생 능력, 회귀, 귀소 본능들을 개별 작품마다 형상화 하고 있다. 이것은 물의 운동태에 박재삼의 시의식이 다양하게 투사되어 물이 즉물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의 액체성’을 근거로 하여 ‘물의 장소감’을 표출해내는 시인의 독특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은 박재삼 시의 특수한 장소애를 드러내는 ‘토포필리아’²²⁾가 된다. 여기서의 토

22)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행복한 공간의 이미지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장소애(topophilic)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바슐라르는 ‘장소애’란 장소분석 연구를 총칭하는 용어로 ‘장소시학’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 이-푸 투안은 ‘인간 존재가 물질적 환경과 맺는 모든 정서적 유대’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확장하는데,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정서적 애착’ 혹은 ‘예찬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쓰인

포필리아는 단순히 장소를 예찬하는 단선적 정서가 아니라 복합적 입체적 정서로서의 ‘장소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나는 토포필리아는 ‘장소에’인 동시에 ‘원망 공간’이며, ‘장소 위기’, ‘장소 위협’의 공간이다. 이때 이 공간은 물을 중심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물의 방랑성 때문이다.

옛날의 우리 누님이 흰 옷가지를 주무르던 그리운 빨래터의 그 닻인 빨랫돌이 멀리서 시방 쟁쟁쟁 반짝이고 있는데…… 참 새로 보겠구나.

그리고 천지가 하는 별의별 가늘고 희한한 소리도 다듣것네, 수풀이 소리하는 것은 수풀이 반짝이는 닻으로 치고, 저 빨랫돌의 반짝이는 것은 또한 빨랫돌의 소리하는 법으로나 느낄까 보다.

그렇다면…… 오늘토록 남아서 반짝이는 빨래터의 빨랫돌처럼 개개(個個)보아 우리 목숨도 흐르는 햇살 속에 한쪽은 몸을 담그어 잠잠하고 다른 한쪽은 무얼 끝없이 뇌고 있는, 갈수록 찬란한 한 평생인지도 모를래라.

- 「한나절 언덕에서」 전문

“빨래터”는 박재삼에게 있어 누님과 함께 한 추억이 담긴 기억 속의 장소이다. 이푸 투안에 따르면 경험적으로써의 공간은 종종 장소의 의미와 섞이고 공간 또한 장소보다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공간 속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고 그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공간이 곧 장소가 된다.²³⁾ 이 말은 추상적인 공간이 동적인 활동의 장소라면 그러한 활동의 누적으로 인해 생긴 공간의 성격은 그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에게 일정한 ‘장소 정체성’ 즉

다. 또한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에 대한 예찬은 전적으로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다”라고 인지하며 장소에(체험)와 원망공간이라는 두 층위로 장소감을 구분한다. 다시 말해, 장소는 억압적으로 감옥 같은 것일 수도 있으며, 예찬이 가는 공간이란 예찬과 억압이 공존하거나 각각의 특징 속에서 주체 내부에 다른 기억이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23) 이-푸 투안, 앞의 책, 19~20쪽

‘장소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옛날의 우리 누님이” 빨래를 하던 개울물이기 때문에 화자의 기억에 각인된 물이며, 이미 기억과 함께 소모되고 흘러가버린 물들이다. 더 나아가 화자가 주목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흐르고 있는 물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빨래터”라는 남아 있는 공간과 그 빨래터에 남아 있는 “빨랫돌”이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시간 속에서 그 자리를 여전히 버티고 있는 돌의 장소감은 물의 방향성과 돌의 고정성으로 대치되어 낯선 공간이 된다. “참 새로 보것구나”와 같은 영탄형 구문 또한 같은 장소이되 다른 장소로 화자에게 인식되고 있는 빨래터에 대한 감상적 토로라 할 수 있겠다. 옷가지에 배인 땀물은 개울을 따라 흘러갔는데 옷가지를 주무르고 있던 그 빨랫돌만 “쟁쟁쟁 반짝이고” 있어서, 이 낯익은 공간에서 발견한 낯선 물상의 형태 때문에 화자는 ‘한나절 언덕에서’ 그 유년의 돌을 보면서 회상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2연에서는 유년 빨래터 풍경에서의 기억들을 복구시킨다. 그것은 마을 여인들이 나누던 시끄러운 소리거나 누님과 얽힌 일화들을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풀이 소리하는 것”으로서 그 추상 공간을 형상화해낸다. “빨랫돌” 또한 반짝이며 소리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추상 공간을 횡단하는 객관적 상관물을 제시한다. 따라서 흐르는 물 곁에서 멈춘 빨랫돌과 사연을 담아 소리를 내는 수풀의 이미지를 통해 “찬란한 한 평생”과 그곳에서 흐르는 “목숨”의 면면들이 구체화된다. 흐름과 멈춤이 공존하는 빨래터에서 기억의 공간을 호출하는 문턱은 물 이미지가 아니라 ‘반짝이는 돌’인 것이다. 엘리아테²⁴⁾에 의하면, ‘문턱’이란 내부와 외부의 경계 구분지음과 동시에 경계

24)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와 장소상실』에서 엘리아테의 논의를 빌어, “문턱이란 내부와 외부의 경계일 뿐 아니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성” 모두 포괄한다고 요약한다. 또한 바슐라르의 논의 보충하여 외부와 내부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내부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여서 언제 둘의 위치가 역전되고 대립하는 입장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요약하였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는 이원적인 동시에 문턱이라는 경계로 인해 중간의 표지, 즉 삼원성의 사고도 가능한 것이다. 내부, 중간, 외부라는 장소의 세밀한 구분은 시에 있어서 시인의 실존

라는 중간, 몽상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첫 도약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한 나절 언덕’이라는 현재의 시공간에서 화자는 과거의 토폴로리아가 각인된 정서적 공간으로 입체적 공간 사유를 경험한다. 여기서 물의 이동과 운동성을 통해 시적 화자는 ‘장소감의 문턱’을 만들고 그 문턱에서 정념의 내부와 외부로 가로지르는 ‘중간의 호흡’을 발현시킨다. 즉, 판단을 유보하고 확정짓지 않음으로써 유보된 정념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서정시의 재래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 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바루의, 그 끝의 평상(平床)의, 갈았은 뜨락의,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만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 「수정가(水晶歌)」 전문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시적 정황은 정화수를 떠놓고 사랑하는 입을 기다리는 재래적 한국 여성의 염원과 그리움이다. 정화수를 떠 놓은 ‘이곳’ 장소에 대한 묘사는 명징하지 않다. 우선은 “-었으래”, “-을까나”와 같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사물에 화자의 의식이 끼어들고 갖드는 과정을 유보시킨다. 이것은 체험된 공간의 구상화가 아니라 체험되었을 법한 가능성의 공간과 추상의 영역에서의 공간 의식을 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감정의 절제임과 동시

적 정서 유발 장소를 보다 명징하게 범주화할 수 있다.

에 감정의 해소 불능의 상태, 즉 한국적 한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춘향)은 집이라는 고정된 공간을 통한 표상으로, 남성(몽룡)은 어디든지 이동하는 바람의 표상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박재삼 시의 독특한 공간 인식 지점은 집이라는 공간성이 거주하는 용도와 안락의 정서적 공간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수”와 같은 고정된 물이 갖는 불안 의식이 함의된 공간으로 역전된다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 정화수의 물 표면이 떨리는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은 “서방님”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과 같다. 그릇에 담겨있는 물과 아침마다 새롭게 이슬이 맺히는 물은 화자의 그리운 정서를 심화시킨다. 그 후에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마음으로 물이 딱딱한 수정처럼 굳어 아름다운 고체가 되고 그 고체에 명확하게 가닿지 못한 추상적 정념(유보된 정념)은 또 다른 물상(성)으로 순환된다. 즉 공간 계열의 집, 평상, 우물집, 산, 언덕과 같은 자연적, 향토적 소재들과 바람, 냄새와 같은 비고정계열의 소재가 대치되어, 기다리는 여성의 장소애와 남성으로 인해 상실된 장소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화수”라는 반(半) 고정적 물 이미지의 구현을 통해 다시 장소애를 불러들이는 “수정”의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여기서 장소의 문턱에 해당하는 객관적 상관물은 정화수 위에 떨리는 “물살”이라 할 수 있다. 이 물살은 화자의 정념이 투사된 과정에 해당하고, 수정은 한이 해소되지 않는 결과에 해당한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장소는 곧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²⁵⁾이라는 에드워드 렐프의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주체가 공간에 길들여지면 그것이 바로 ‘장소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실제의 ‘장소’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존재론적 의미에서 박재삼의 정신적 원형, 근원적 장소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화수를 떠 놓은 ‘이곳’은 백석의 상상력에 의해서 새로운 장소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발현시키는 장소이다.

25)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05쪽.

4. 표상공간과 장소정체성

지금까지 박재삼에 대한 연구가 춘향 설화에 모티브를 가진 시편들²⁶⁾과 그에 대한 비교 연구로 주목된 이유는 박재삼의 시의 슬픔을 한국 전통적 한의 육화의 측면에서 고찰해왔기 때문이다. 춘향 설화를 통해 형상화 하려 했던 슬픔과 한은 공동의 슬픔을 구체화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춘향 설화를 육화할 수 있는 고통의 시작은 개인적 체험을 은폐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공의 설화 모티프의 차용해서 보이는 한과 개인의 체험에서 읽어낼 수 있는 고통²⁷⁾은 서로 ‘부재’와 ‘죽음’의 현시화라는 짝을 이루게 된다.

(1)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26) 춘향 계열 시편들 중 「수정가」를 제외하고 「화상보」, 「녹음의 밤」, 「포도」 등은 옥중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즉 임이 부재한 공간과 춘향이 구속된 공간이 동시에 체화되어 시적 화자로 하여금, 한의 최대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통고의 공간이다.

27) 「봄바다에서」, 「어지러운 혼」, 「밀물결 치마」, 「밤바다에서」, 「광명」, 「섬」과 같은 시편들은 어린 시절 시적 화자가 경험한 남편 문씨 부인의 죽음을 구체화한 시이다. 그 밖에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서는 친구의 실연에서, 「추억에서」, 「진달래꽃」은 가족사와 가난 체험에서 슬픔을 형상화한다.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 「울음이 타는 강」 전문

(2)

형(刑)틀에 매여 원통하던 일을 이승에서야 다 풀고 갔으려만
저승에 가 비로소 못 잊었던가
춘향이 마음은 조롱조롱 살아 다시 열렸네.

저것은 가냘피 아파 우는 소리였던 것을,
저것은, 여릿이 구슬 맺힌 눈물이던 것을,
못 겨딜 만큼으로 휘드러있네.

우리의 무릎을 고쳐, 무릎 고쳐 빠마치는 소리에 우리의 귀는 스스로 놀라고,
절로는 신물이 나, 신물나는 입맛에 가슴 떨리어,
다만 우리는 혹시 형리(刑吏)의 손아픈 후예(後裔)일라……

- 「포도(葡萄)」 부분

「울음이 타는 강」과 「포도」는 화자의 슬픔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러나 슬픔을 겪고 있는 화자의 처지는 상이하다. 「울음이 타는 강」은 화자 본인의 슬픔이 아니라 ‘친구’의 슬픔이고, 「포도」는 옥에 갇혀 있는 춘향의 슬픔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는 친구의 이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화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서글픔의 강도가 「포도」만큼의 깊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무릎을 고쳐, 무릎 고쳐 빠마치는 소리에 우리의 귀는 스스로 놀라고,”와 같은 강한 그리움을 내포한 심사도 드러나지 않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을 햇볕으

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며 눈물이 흐른다거나 “사랑 끝에 생긴 울음”을 물소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직관 정도가 제시될 뿐이다. 즉 화자가 구현해내고 있는 슬픔의 실존적 자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울음이 타는 강」에서는 타자(친구)의 경험이 화자로 이행된 것이고, 이 정황에서의 서글픔이란 주체(근대)가 갖게 되는 슬픔의 질감인 데 반해 「포도」에서의 투사된 슬픔은 주체(전근대)의 입을 향한 그리움이자 포박을 당한 괴로움과 통고의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슬픔 상황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서글픔’과 “원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두 시편에서 구축되는 공간 전략 또한 차이를 보인다. 「울음이 타는 강」은 개방형 장소 속에서 화자의 정서가 이동하는 반면, 「포도」는 폐쇄형 장소인 ‘옥중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전자의 시에서는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 즉 방랑하는 마음의 운동성의 집중하면서 화자의 마음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 장소감이 나열된다. “가을 햇볕”- “등성이”- “큰집”- “(해질녘) 가을 강”- “산골 물소리”- “하늘”- “바다”에 이르기까지 정처 없는 이별의 고통을 여러 자연물들과 기억의 장소들을 경유해서 분산하고 이동시킨다. 이와 같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화자는 이별로 인해 구속되고 속박된 정서로부터 해방된다. 반면 「포도」에서는 옥이라는 특수성을 정황으로 두면서 그것이 화자를 가둔 ‘장소 압박’의 권력임을 암시하게 한다. 춘향이 겪고 있는 옥 속의 처지는 당대의 부당한 권력을 상징화하고 있으며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의 상하수직적 관계마저도 함의하고 있는 억압의 공간이다. 따라서 이 시는 춘향 개인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춘향 개인의 연사의 시이면서, 당대 여성들의 수동적 처지를 환기시키는 시인 것이다. 이를 통해 박재삼의 시는 개인의 체험을 통해, 타자, 타자들(공동체)의 슬픔을 육화하려는 방법론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방과 폐쇄의 토폴로리아를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바슐라르에 따르면 표상공간은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표상’되기 때문에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공간이 주는 체험은 ‘원형적인 감각’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시화(詩化)된 ‘기억’의 장소²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과 “옥”이라는 ‘특정한 장소’

는 일종의 표상 공간으로서 시인의 정서와 상상력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슬픔이 탄생하는 근원적 장소성의 의미를 가진다.

5. 결론

공간의식을 통해 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인의 내적 정념과 사유구조, 대상을 열린 존재로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상학 토대의 인본주의 지리학에서 생활 세계는 ‘장소’라는 공간 범주에서 탐색된다. 그것은 인간이 기억하는 장소나 경관, 지리적 명칭 등 형식적 개념을 넘어 인간 실존과 열린 존재의 인지적 사고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 대해 시인의 정서와 상상력이 작동한 결과, 생성된 공간은 그저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정신적 원형’을 담지하고 있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시키는 장소가 된다. 특정 장소와 경험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공간은 그 공간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에게 일정한 ‘장소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며 이러한 ‘장소성’은 자신만의 정서를 발현시킨다. 이는 시인이 시적 피상물을 대상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고는 박재삼 초기시에 나타난 장소성을 중심으로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공간의 양태들과 장소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재삼에게 각인된 추상공간이 장소성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은 ‘산’, ‘별’, ‘바다’, ‘섬’과 같은 자연물을 소유하는 동안 시간적 거리를 압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과거의 기억과 죽음에 관한 체험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병치됨으로써 시적 정서의 이행과 통로, 공간에서의 기억의 틈 등이 유발된다. 이 때문에 박재삼이 인지하는 장소는 응축된 장소이며 화자로 하여금 장소애와 장소 내상을 동시에 확보시키는 일상의 범상한 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성은 어떤 특정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며 시를 감상하는 이

28)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105~106쪽 참조.

로 하여금 보다 근원적인 감각을 교감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후각’의 이미지는 유년기 흙의 냄새, 고향의 냄새이기에 생명이 담긴 공간으로 고향 합일이라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박재삼의 시적 상상력이 지향하는 대상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유년기 기억과의 교감 또는 공동체적 충만감의 정서이자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소이기에 근원적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더 나아가 박재삼 시에서 다수 엮보이는 물 이미지에 대한 변주 또한 현상학적 측면에서 장소 고찰이 가능하다. 그것은 물의 공간이 고정, 정지되어 있는 것인지 흐름과 근원적 상상력을 담보하는 것인지에 따라 각각의 다른 관념화가 구상되고 있다. 물의 이동과 운동성을 통해 물의 시적 화자는 ‘장소감의 문턱’을 만들고 그 문턱에서 정념의 내부와 외부로 가로지르는 ‘중간의 호흡’을 발현시킨다. 즉, 판단을 유보하고 확정짓지 않음으로써 유보된 정념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서정시의 재래적 정체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공간의 개폐되는 양상을 통해 화자가 품게 되는 슬픔의 깊이 또한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타자(친구)의 이별과 준향(공동체)의 이별을 통해 박재삼이 창조한 슬픔의 편린들을 추적하여 박재삼 초기시가 가진 슬픔의 육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자가 ‘타자’라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공간 구성이라면 후자는 수직적 관계의 공간 구성인데, 이를 통해 개방과 폐쇄의 공간들이 시편들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강’과 ‘옥’이라는 ‘특정한 장소’는 시인의 정서와 상상력에 의해 생산된 것이기에 슬픔이 탄생하는 원형적 장소성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박재삼 초기시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 고찰을 통해 그간 박재삼시의 현상학적 연구에 보다 깊은 이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고형진, 「박재삼 시 연구-초기시의 시적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호, 한국문예비평연구학회, 2006.
- 권정우, 「박재삼 시에 나타난 슬픔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37호, 한국시학회, 2013.
- 김강재, 「박재삼 시의 공간의식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9호, 동남어문학회, 1999.
- 김강재, 『박재삼 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2000.
- 김명희, 「박재삼 시론-바다와 저승 이미지」, 『새국어교육』 제3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982.
- 박명자, 「빛과 어둠의 콘트라스트, 恨 -박재삼 초기시에 나타난 눈물 이미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8.
- 박미정, 「박재삼 시에 나타나는 바다의 공간성 고찰」, 『동남어문논집』 제32호, 동남어문학회, 2011.
- 박재삼, 『박재삼 시전집1』, 민음사, 1998.
- 박재삼, 『박재삼 시전집』, 경남, 2007.
- 서정주, 「詩推薦辭」, 『현대문학』, 1955. 11.
- 신현락 「물 이미지를 통해본 박재삼의 시 세계」, 『비평문학』 제12호, 한국비평문학회, 1998.
- 여태천 「박재삼 시와 서정의 문법」, 『한국어문학연구』 제52호, 동악어문학회 2009.
- 유치환, 「詩薦後感(1)」, 『현대문학』, 1955. 6.
-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7.
- 이기흥, 「빈 공간에서 충만한 공간으로-2차 공간의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제5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이성희, 「박재삼 시에 나타난 연금술적 상상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3.

- 장만호, 「박재삼 초기시의 공간 유형과 의미-박재삼 시집 『춘향이 마음』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30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 조춘희, 『전후 서정시의 전통 담론연구-조지훈, 서정주, 박재삼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 황인원, 『1950년대 시의 자연성 연구-구자운, 김관식, 이동주, 박재삼 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
-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동문서, 2003.
-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전양범 역, 동서문화사, 2008.
-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 상실』, 김현덕 외 역, 논형, 2005.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심승희 외 역, 대운, 2007.

【Abstracts】

The contemplation of placeness in Park Jaesam's
early Poetry

Kim, wongyeong

Instead of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poems of Park Jaesam, the research is tuned to the traditional and distinct quality of Korea's modern poetry that converges to terms such as 'han (deep sorrow)' or 'traditional lyricism.' Even recent researches, including those on the imagery or the construction of the formal beauty, overlook the focus of post-war Korean society and the consciousness expressed by the plac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ideration of the place and space in which poetic emotions occur and of the poems' consciousness that abundantly expresses the signs of Park's existential life. The water imagery and its variations that are often present in Park's poems can be thought of in the phenomenological aspect. The space of water is either fixed/static or guarantees flow and the fundamental imaginations. Each state leads to a different conceptualization. Hence, the persona creates 'the threshold of the sense of place' via the movement of water, and generates 'the middle respiration' which, from the threshold, crosses the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pathos.

The depth of sadness the persona holds through the opening and closing of the space forms itself into a different imagery. The imageries of parting from the other (friend) and that from Chunhyang (community)

make a contrast which allows the shards of sadness to be traced. The pursuit, then, enables one to inspect the ways sadness takes bodily forms in Park's early poems.

Key words : Park Jaesam, the nature of place, the threshold of the nature of place, the space of passage, the opening and closing of the space

이 논문은 2018년 0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